

# 양용은, 호랑이 사냥

PGA 챔피언십 우즈에 2타차 맹추격 ... 챔피언조서 맞대결

‘바람의 아들’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골프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또 한번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양용은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장(파72·7천674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전날 공동 9위에서 공동 2위(6언더파 210타)로 순위를 끌어올린 양용은 통산 71승이자 15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리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8언더파 208타)에 2타차로 따라붙었다. 2006년 11월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 챔피언십에서 우즈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양용은은 이번 대회 최종일 챔피언십조에서 우즈와 맞붙어 호랑이 사냥에 도전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즈에 크게 뒤

지는 양용은이지만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도 우승했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자신감이 충만하다. 전날 강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2타를 줄여 톱10으로 진입한 양용은은 3라운드 5번홀(파4)에서 8m 짜리 긴 버디 퍼트를 넣는 등 전반에 버디 3개를 낚으며 치고 나갔다. 양용은은 13번홀(파3)에서 1타를 잃고 주춤하기도 했지만 14번홀부터 16번홀(이상 파4)에서 3개를 연속 버디를 잡는 불꽃타를 휘둘렀다. 양용은은 경기 뒤 “우즈와 경기하는 것을 많이 기대했는데 너무 빨리 현실이 돼 버렸다”며 “비록 내일 떨어졌지만 집중하고 내 흐름을 유지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즈와 경쟁에 대해서는 “우즈는 (PGA 투어에서) 70차례 우승했지만 나는 단 한 번 밖에 못해 70대 1의 확률이다”며 “하지만 남은 라운드에서 온 힘을 다해 꼭 이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공동 26위(2오버파 218타)에 자리했고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은 공동 39위(3오버파 219타),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공동 65위(7오버파 223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양용은이 16일(한국시간) 미국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골프대회 PGA 챔피언십 3라운드 18번홀에서 벙커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24번째 넘겼다!... 김상현 홈런 1위

# 유소연 을 시즌 벌써 4승



히어로즈 브룸바와 함께 공동 선두  
KIA, 삼성 주말전 2승1패... 1위 질주

연승 행진은 끝났지만 1위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12개의 안타를 몰아친 끝에 10-8로 승리했다. 전날 삼성 타선에 20개의 안타를 내주며 4-14로 패했던 KIA는 하루 만에 설욕전을 펼쳐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신예 좌완투수들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마운드 싸움은 양현종의 관성승으로 끝났다. 삼성 차우찬이 5피안타(2홈런) 6실점으로 2이닝 만에 강판당한 것에 반해 타선의 화끈한 지원을 받은 양현종은 5이닝 6피안타 2사사구 5실점으로 시즌 9승째를 기록했다. 1회초부터 KIA의 거친 공

세가 펼쳐졌다. 1사에서 내야안타로 출루한 김원섭이 도루에 성공한 뒤 포수 송구가 뒤로 빠진 틈을 타 3루까지 내달렸다. 나지완의 볼넷으로 1사 1·3루, 최희섭의 1루수 앞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김원섭이 협살에 걸렸지만 포수 주루방해로 득점을 인정받았다. 김상현의 땅볼과 홍세완의 볼넷으로 만루를 만든 KIA는 김상현의 싸움에 3루타로 4-0으로 1회를 마무리했다. 2회 이종범의 솔로포에 이어 3회에도 나지완과 김상현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10-1이 됐다. 5이닝을 1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은 양현종이 6회말 선두타자 김상수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흔들렸다. 4개의 안타를 연달아 허용한 양현종은 결국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손영민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6회에만 4점을 뺏으며 10-5까지 추격한 삼성은 8회 박석민의 솔로포에 이어 9회 2점을 더해 10-8을 만들었지만, 9회말 2사 만루에



16일 대구시민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기아 경기에서 기아의 김상현이 3회초 무사 1루서 투런 홈런을 날린 뒤 3루를 돌며 최태원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박석민의 우익수 플라이 아웃이 나오면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한편 양팀은 3연전 내내 방망이 전쟁을 벌이며 대구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12연승 실패 이후 첫 경기였던 14일 KIA는 최희섭과 김상현의 홈런포를 앞세워 9-2로 승을 신고했다. 15일에는 삼성이 20개의 안타를 몰아쳤고, 16일에는 KIA가 12개의

안타(3홈런)를 뺏아내는 등 양팀은 이번 3연전에서만 67개의 안타를 주고받았다. ‘삼성 킬러’ 김상현은 이번 원정 3연전에서 11타수 5안타(타율 0.455)를 기록하며 5타점을 쏟아냈다. ‘타점왕’ 김상현(94타점)은 16일에는 투런포를 추가해 홈런 부문에서도 브룸바와 함께 공동 1위(24개)에 올라섰다. /김여울기자 wool@

하이원리조트컵 역전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유소연(19·하이마트)이 3개 대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하반기를 힘차게 열어젖혔다.

유소연은 1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골프장(파72·6천496야드)에서 열린 하반기 첫 대회 하이원리조트컵 SBS채리티 여자오픈 마지막 버디 7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함께 10언더파 206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멤버 정일미(37)도 국내대회 6년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17번홀(파3)에서 1타를 잃어 아쉽게 2위(9언더파 207타)에 그쳤다. 유소연은 을 시즌 4승과 함께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예스24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과시했다. 상금 2억원을 받은 유소연은 시즌 상금 랭킹 1위를 지켰다. 공동 선두 그룹에 2타차 공동 6위로 출발한 유소연은 전반에만 5타를 줄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서 챔피언십에서 경기한 정일미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다.

후반 들어 파행진을 계속하던 유소연은 16번홀(파4)에서 티샷이 페어웨이 벙커턱에 얽힌 탓에 1타를 잃어 공동 2위로 밀리



유소연이 16일(한국시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골프장에서 열린 하이원리조트컵 SBS채리티 여자오픈 마지막 버디 7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함께 10언더파 206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도 했다. 17번홀(파3)에서는 2m 남짓한 버디퍼트가 홈을 돌아나와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유소연은 18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2m에 붙인 뒤 버디로 마무리하며 카트에서 정일미의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정일미는 17번홀에서 티샷이 그린을 넘어갔고 어프로치 샷마저 홈을 지나쳐 2퍼트도 홀아웃하면서 뼈아픈 보기를 적어냈다.

정일미는 18번홀에서 연장전을 노렸지만 두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가 파로 끝내면서 우승컵을 유소연에게 넘겨줬다. /연합뉴스



# 기록의 사나이 한화 송진우 21년 선수생활 은퇴

210승·103세이브·30030이닝·2048K

국내프로야구 최고 투수인 ‘회장님’ 송진우(43·한화 이글스)가 16일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진우는 “2군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왔지만 명성에 걸맞은 피칭을 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가족, 구단과 상의해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화는 전했다.

한화는 송진우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투수이며 21년간 팀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외국연수를 보내줄 계획이며 올 시즌 남은 경기 중 하나를 선택해 은퇴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로 활약한 송진우는 1988년 신인 1차 지명으로 1989년 빙그레 이글스(한화 이글스 전신)에 입단했다.

이후 송진우는 21시즌 만인 지난 4월 국내 선수 최초로 개인통산 3천 이닝(3천30이닝)을 돌파하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랐다.

21시즌 동안 통산 671경기에 출장해 프로 최다인 210승(153패103세이브)을 거뒀으며 평균자책점은 3.51이었다.

또 사상 첫 2천 탈삼진(2천48개) 등의 기록을 보유한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 투수 중 한 명이었다.

송진우는 1992년 19승을 거두며 최다승 투수상을 수상했으며 2000 시드니올림픽 동메달과 부산아시아대륙권 우승의 주역이었다. 또 2002년 골든글러브(투수)를 수상하는

등 투수 부문 각종 상을 휩쓸었다. 국내 최고령 선수답게 각종 최고령 기록도 갖고 있다.

지난해 9월13일 문학 SK전에 선발 투수로 나와 최고령 선발승(42세 6개월 28일)을 거뒀으며 지난 4월26일에는 최고령 경기 출장기록(43세 2개월 10일)을 세웠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구위가 떨어져 지난 4월 13경기에 등판해 1승을 올리고 방어율 7.36을 기록한 뒤 4월28일 2군에 내려가 결국 은퇴에 이르렀다.

한화는 18일 대전야구장에서 공식 은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